

진행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
의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
견해나 경험을 절대로 얘기하지
않는 것이라고 한다. 그래서
점잖은 사회자들은 부득이 한
경우에도 “이거, 개인적인 얘기
를 해서 죄송합니다만”이라는
말을 먼저 꺼낸다.

그러나, 나는 항상 특정 개인
의 경험과 생각을 물어봐야
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
도 필요하다면 수많은 개인중
의 하나로서 그 자리에 서야
한다고 믿는다.

‘낙태’를 주제로 다룰 때였
다. 우리나라 아낙치고 낙태를
경험하지 않는 여성은 별로
없다고 하는 만큼, 낙태는 여성
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어
온 것이었다. 낙태에 대한 도덕
적인 논란을 떠나 낙태를 경험
한 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심정
을 들어본 후, 그 해결방안의
하나로 피임이 거론되었다.
마침 산부인과 전문의인 여자
의사 한 분을 모셔서 그 방법을
듣는 차례가 되었다. 그림과
함께 여러 가지 피임법이 설명
되었으나 시간도 짧은 데다,

나 스스로 피임에 관한 지식이
충분치 않아 어떤 게 가장 좋은
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.

“선생님, 여러 가지 피임법을
설명해 주셨는데, 제 생각에는
전문가가 쓰는 방법이 가장
믿을 만할 것 같아요. 선생님은
어떤 방법을 쓰시는지요?”라고
문자 그 여의사는 황당해 하며



“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합니다만...”

오숙희/KBS - TV 생방송 여성광장 진행자

마구 웃었고 객석도 웃음바다가
되었다. 난 전혀 그럴 의도가
아니었는데.

“사회자가 얘기하면 나도
하지요” 뜻밖의 반격(?)을
받자 나 역시 웃음이 터져나왔
다.

“저는 사실, 주기요법을 쓰는
데 아닌게 아니라 좀 불안합니

다.” 대답하는 그 짧은 순간,
이상하게도 남편의 얼굴과 시어
머니의 얼굴이 얼핏 머리속을
스쳤다. 정말 이상하게도.

“저는 콘돔을 써요.”

냉정을 되찾은 의사 선생님이
단정한 자세로 짧게 답했
다.

그 후 객석을 돌며 몇 명에게

사용하는 피임법을 물어보았
다. 모두들 일사천리로 척척
대답해 주었다. 결코 자기 얘기
를 털어놓지 않을 것 같은 사람
들이 허물을 벗어던지자 그들도
경계심이나 수치심을 풀고 자기
를 털어놓게 된 것이다.

방송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
니 남편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

식당에서 밥먹으며 보다가 놀림
을 당했다며 겸연쩍게 웃었다.
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강의를
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
안면이 있는 남자 선생님 한
분이 다가와 앉으며 “지난 주에
프로 잘 봤습니다. 뭘로 피임하
시는 줄도 알았구요.”하는 게
아닌가. 나는 대뜸 “그래요,

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떤 피임법
을 쓰시는데요?”라고 되물어
버렸다. 그 선생님의 당황하는
표정을 보며 아까 한 말은 날
놀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심증이
굳어졌다.

그로부터 한달쯤 지났을까
시택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
“희록 에미나, 네 프로는 이

동네에서도 다 본다. 김덩굴
(시어머니의 친정동네 이름)
에 사는 오삼춘일랑 이모들도
다 본다는 거. 그런데 막내
이모가 그 피임인가 뭇인가
하는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
 좋겠다는 거.” 칭찬에 섞어
슬쩍 췌기를 박으셨다. 하기가
시골의 보수적인 시어른들이



보시기에는 얼마나 민망하셨을
까?

진행자인 내가 그 한 마디에
이렇진대 중심사례자로 나와
구체적인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
얘기했던 여성은 그후 얼마나
곤혹스런 일을 많이 당했을까.
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
겪은 일들이 조금이나마 그들의

‘짐’을 함께 진 것이라고 생각하
게 되었다. 그 후 나는 소위
점잖은 전문연사들을 개인의
자리로 끌어내리는 실례를 의도
적으로 종종 범하게 되었다.
성폭행을 다룰 때 출연한 변호
사에게 ‘당신도 딸만 둘 있었다면
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냐’
고 물었고, 40대 남자가 주재였
을 때는 신경정신과 의사에게
‘당신도 40대인데 별문제가
없냐’고 했다. 다행히도 그들은
유연하게 개인의 입장을 얘기해
준 편이었다. 그리고 보면 남자
들도 ‘목에 힘주는 자세’보다는
좀 퍼진 듯한 분위기를 원하는
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.

‘지금 나는 그 피임법을 불안
해한 것이 마치 예언이 된 듯이
임신하여 막달에 이르렀고,
그때 그 수다판에 나를 끌어들
었던 여의사의 병원에 다니고
있다. 요즘도 그때 얘기를 하면
서 한바탕 웃곤 하는데, ‘자기문
제로부터 출발하는 수다’가
맺어준 인연이라고나 할까.